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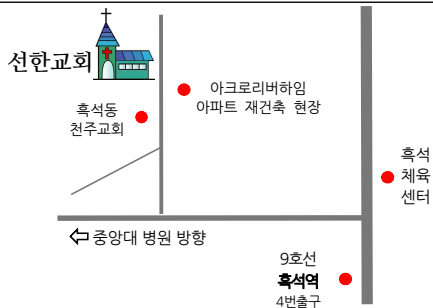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요기도회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유 신 웅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4장 (통일찬송가 13장)	
교 독 문	교독문 1번(시편 1편)	
찬 양 과 경 배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계시록 2:14~20	
설	교	영적 온도를 높이자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박영근 손영삼 심인섭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는 믿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탁월한 하나님의 용병술 (사무엘상 29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사 무 처 리 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2. 기관별 수련회 일정	청년부 : 19~20일(금~토), 기독교 캠프코리아(한국산업기술대학교)	
	3. 기부금 영수증 신청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주 소 록 확 인	2018년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주소와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매 일 성 경 강 론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6. 예 배 준 비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및 정 리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상도셀 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가정예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가시떨기나무”

찬송 :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479장(통 290장)

본문 :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와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 버려 재가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이상히 여기며 불붙은 떨기나무로 다가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무는 정확하게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가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나무에서 나오게 된 게 가시입니다(창 3:17~18). 누가 봐도 가시떨기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수려한 빛깔의 꽃을 가진 나무처럼 아름답지도,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시는 고통을 주며 상처를 낼 뿐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곧 가시입니다. 이 땅에서의 저주가 가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불로 타오르던 햇불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에 타버린 가시떨기 잿더미일 뿐입니다. 옛날에 있던 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 인생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불은 곧 식습니다. 성실도 감사도 신앙도 언젠가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모세의 열정이 타지 못하고 재가 된 이유는 사람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자신에게 여호와와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의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게 됐고 드디어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년 동안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람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마다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영원히 타오를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식지 않는 열정과 감사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불이 더 뿔뿔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영적 온도를 높이자 (계2:14-20)

서론

새해에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뜨겁게 올려야 합니다.

1. 우리의 상태

- (1)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함(15,16)
- (2)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17)
- (3)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문을 굳게 닫아둠(20)

본론

2. 주님의 권면

- (1) ‘내게서 사라’(18)
- (2)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19)
- (3)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20)

결론

여러분을 통해 선한교회가 부흥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김대희	박희태
헌 금 위 원	박영근 손영삼 심인섭	박영근 손영삼 심인섭
안 내	안양셀	상도셀

매일 성경 강독		적진에서 커가는 다윗의 영향력	날짜 : 1월 15일
찬양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찬송가 3488장/통일 찬송가 539장)		
통독	사무엘상 27장		
본문 내용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육백 인과 함께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분할받아 거주했는데,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노하여 그 주민을 다 죽이고, 아기스에게는 이를 속임으로 신임을 받습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블레셋 망명 (1) 사울이 잘못을 뉘우쳐도 여전히 두려웠기에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피함 (2) 3차 도피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유다 헤브론으로 돌아오기까지 기간(27장~삼하2:1) (3)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청하여 시글락에 거주함 (4)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 가드왕을 위해 그술 및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 그리고는 아기스에게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겐 지역의 남방을 공격했다고 허위 보고함으로 아기스의 신임을 받음 (5) 성도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핵심 단어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 직역하면 ‘다윗이 그와 같이 행동했다. 그리고 그의 관례가 그와 같다’ 가 된다. 만약 다윗이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들을 살려두었다면 포로로 끌려온 그들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본문에서 ‘행사’라는 명사로 번역된 ‘아사’ 는 본래 직역에서 살펴본 대로 ‘행동했다’ 로 번역되는 동사이다. 여기서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고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는 여라무엘 등을 침노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 등을 침노한 것을 가리킨다. 또한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라고 번역된 ‘웨코 미쉬파토’는 먼저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머문 동안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치면서도 아기스에게는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의미와 더불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을 친 것으로 볼 때, 그는 겉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블레셋에 대해서도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찬양과 기도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잘 알려진 김하중 장로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두란노)라는 책을 통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아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아내는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장로님이 아내와 교제하며 이런 사실을 어머님께 말씀드렸을 때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기만 하라”며 승낙해 주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 장로님의 아내는 매 주일마다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고 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오랜 기도가 공무원으로 일에 파문혀 살며 교회는 물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장로님을 회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중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관 직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김하중 장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아내의 역할이 컸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부부로, 친구요 동지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동역자로 여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부부가 결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7:1~16	
묵상포인트	성도는 육신의 욕망이 아닌 거룩함을 좇아야 합니다. 결혼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현상이 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부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자신의 정결과 책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갈등과 위기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먼저 생각할 때, 가정은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이 독신의 영적 유익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결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소서. 자기주장을 내려놓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에 힘쓰게 하소서. 갈등과 다툼이 화목으로 바뀌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불순종의 끝은 멸망입니다	날짜 : 1월 19일
찬양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찬송가 270장/통일 찬송가 214장)		
통독	사무엘상 31장		
본문 내용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사울의 아들과 사울을 차례로 죽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은 자기 병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 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거부하자 사울은 자기 칼에 스스로 엮드려져 죽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벤산 성벽에 못 박았으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사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생각해보기			
1	사울의 죽음 (1)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그 와중에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했고 사울은 큰 부상을 당하여 자결함으로 끝남 (2)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위험을 무릅 쓴 헌신적인 수고로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한 사울과 세 아들의 사체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지냄. (3) 야베스 거민들은 이전에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해 준 데 대한 보답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4)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경우 뜻하지 아니한 때에 보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것이 바른 도리이다.		
핵심 단어	밤새도록 가서 -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벤산까지 밤새도록 걸어갔었다. 그들이 한밤중에 밤새도록 간 까닭은 벤산 성벽까지 가는 길이 험할 뿐 아니라 당시 그곳에 흩어져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편 길르앗 야베스에서 벤산까지는 약 20km가 넘는 먼 거리이므로 도보로 약 5시간을 걸어야 했다. 밤새도록 걸어가서 밤에 사울의 시체를 내려 가져온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온 것은 과거 자신들이 암몬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울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을 구해 준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거꾸로 가는 사울	날짜 : 1월 16일
찬양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544장/통일 찬송가 343장)		
통독	사무엘상 28장		
본문 내용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위한 참전을 명합니다. 블레셋의 군대로 인해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자,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로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울의 영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고,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로 인해 땅에 엎드려진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살진 송아지와 무교병을 대접받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과 사울에게 닥친 어려움 (1)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킴으로써 다윗과 사울이 함께 곤란한 지경에 빠짐 (2) 다윗은 아기스가 길보아 전투에 참전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동족상잔의 위기에 처함 (3)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위기 극복의 방안을 듣기 위해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리게 함 (4) 사울은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과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르리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절망에 빠짐 (5) 곤경에 처했을 때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핵심 단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으로 나타난 그 영을 보고서야 겨우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사울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가 사울 왕과 사무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에서 ‘속이다’라는 의미의 ‘렘터타니’의 원형은 ‘라마’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처럼 강의형으로 사용되면,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진실을 내던지고 거짓으로 대체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는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되어 사울이 치밀한 계획으로 자신을 속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엔돌의 접신녀는 사울이 변장하고 자기에게 와 초혼술을 요청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를 속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은 사람은 단순히 엔돌의 신접한 여인만이 아니다. 오히려 사울은 사단의 거짓된 장난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짜 사무엘의 영이 출현한 것으로 믿음으로써 더 큰 속임을 당하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탁월한 하나님의 용병술	날짜 : 1월 17일
찬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통일 찬송가 270장)		
통독	사무엘상 29장		
본문 내용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으로 인해 아기스에게 항의하며 그를 돌려보내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장관들의 제안대로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전장에 갈 수 없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시글락 회군 (1)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만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함 (2)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의 철수 명령을 내리자 다음날 새벽 일찍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철수함 (3) 한 순간의 실수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심으로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핵심 단어	거슬려 보이게 말라 -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블레셋 장관들의 눈에 나쁘게 보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부정어 ‘로’ 가 동사 미완료형과 함께 사용되면, 영원한 금지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는 말에 부정어 ‘로’와 동사 미완료형이 함께 쓰여 영원한 금지 명령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아사’의 남성 2인칭 단수 미완료형인 ‘타아세’가 ‘로’ 뒤에 쓰여서, 영원한 금지 명령을 나타낸다. 아기스는 다윗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어 영원토록 블레셋 장관들의 눈에 거슬려 보이게 말라고 다윗에게 신신 당부했던 것이다. 아기스의 이러한 당부에서 우리는 망명자 다윗이 블레셋 장관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그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블레셋 장관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지 않았다면, 아기스가 이처럼 영원한 금지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날짜 : 1월18일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5342장/통일 찬송가 395장)		
통독	사무엘상 30장		
본문 내용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동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은 불탄 성과 사로잡혀 간 처자들로 인해 소리 높여 읍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하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여호와께 뜻을 묻고, 아말렉을 추격하라는 답을 듣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브솔 시내를 건너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버림 받은 자였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을 선대하는 조건으로 다윗 일행을 아말렉 군대의 처소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아말렉을 쳐서, 잃어버린 가족과 탈취물을 다 찾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다시 브솔 시내를 건넌다. 거기에는 피곤하여 다윗을 따르지 못한 이백 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전투를 치른 사백인의 군사들은 이들 이백 인에게 처자만 돌려주고, 탈취물은 나눌 수 없다고 다윗에게 항변합니다. 다윗은 이들을 설득하여 탈취물을 나누게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습니다.		
생각해보기			
1	시글락 약탈 사건 (1) 아말렉족속은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여인을 사로잡아 감 (2) 이에 다윗은 낙심천만해 하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포로로 잡혀가 사람들과 물건들을 되찾아 옴 (3) 다윗은 노획한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누고 일부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냄 (4)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게 되면 후에 크나큰 값으로 되돌아온다.		
핵심 단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로’ 가 나온다. ‘그에게’ 로 번역될 수 있는 ‘로’ 의 의미를 살려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한 당사자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특히 아비아달 제 사장을 통해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직접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한편, 본문은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응답을 받은 반면, 사울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